

미술 빅 이벤트 준비...4계절 내내 문화예술 '힐링'

광주는 비엔날레의 도시

비엔날레라는 용어조차 아는 사람이 드물던 1995년, 광주시장인 강운태씨가 주도하고 국내 유력 미술인들이 의기투합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시작한 광주비엔날레는 아시아 최초의 비엔날레였다. 광주비엔날레는 30년 역사를 쌓아 오는 동안 세계 미술계에서 아시아 최고의 미술행사로 지위를 확고히 했다. 지난 9월 7일 개막해 이달 1일 막을 내린 제 15회 광주비엔날레는 80만명이 관람하는 대성공을 거뒀다.

2014년 세계적 권위의 인터넷 미술매체 아트넷(Artnet)이 선정한 '세계 20대 비엔날레'에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비엔날레, 독일의 카셀 도큐멘타, 미국 뉴욕의 휘트니 비엔날레, 유럽의 순회 비엔날레인 마니페스타와 함께 세계 5대 비엔날레에 이름을 올렸다. 국제 미술계에선 세계 4대 비엔날레로 불린지 오래다. 상하이 비엔날레나 도쿄 비엔날레는 광주비엔날레에 자극받아 창설된 미술 이벤트들이다.

광주에선 또 광주비엔날레와 해를 번갈아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도 열린다. 2005년 창설된 광주디자인 비엔날레는 지난해 10회째를 치르면서 산업으로서의 디자인과 예술로서의 디자인이 어우러진 국내 최고 최대의 디자인 축제임을 과시하고 있다.

2년마다 열리는 국제현대미술제인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1995년, 광복 50주년을 '미술의 해'를 기념하고 한국 미술문화를 새롭게 도약시키는 한편 광주의 문화예술 전통과 5·18광주민주화항쟁 이후 국제사회 속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광주 민주정신을 새로운 문화적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창설되었

아시아 첫 광주비엔날레 30주년 32개국 72명 작가 다양한 작품 도시 곳곳이 살아있는 예술공간 주민들도 적극 참여 문화적 경험 디자인비엔날레와 운영 일원화

다. 창설 취지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의 민주적 시민정신과 예술적 전통을 바탕으로 건강한 민족정신을 존중하며 지구촌시대 세계화의 일환으로 문화생산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모색해왔다. 따라서 광주비엔날레는 미술이라는 표현 형식을 넘어 여러 민족, 국가, 문화권 간의 소통의 폭을 넓혀 가는 평화의 제전이기도 한 것이다.

이번 제 15회 광주비엔날레는 '판소리: 우리 시대의 소리풍경'을 주제로 32개국 72명의 작가가 참여한 본전시와 31개의 파빌리온으로 구성되어 세계 미술계의 찬사를 받았다. 영국 아트리뷰, 프랑스 르몽드 등 해외 유수 언론들은 "전통과 현대의 혁신적 만남"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아시아 현대미술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림동 일대 8개 장소에서 진행되는 12명 작가들의 사운드 프로젝트는 도시 전체를 살아있는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의 일상적 공간을 예술적 경험의 장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풍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중 필리핀관에는 필리핀의 혁명과 변화의 순간들을 시각화한 '자유의 장소'가 큰 주목을 받았다.

성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했다. 올해 파빌리온은 기존의 국가 중심 참여 방식을 탈피하여 독립 기관, 기획자, 도시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혁신적인 구성을 선보였다. 양림동에 위치한 폴란드, 캐나다, 덴마크,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5개국의 파빌리온은 근대 역사문화 마을의 특성을 살린 전시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이는 양림동을 새로운 미술 중심지로 부상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야외광장에서 운영된 '마당 푸드 랩'은 예술과 식문화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았다. 프랑스 출신 셰프 질 스타사르가 기획한 이 공간은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

석한 메뉴를 선보이며, 관람객들에게 미식과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창의적인 메뉴 개발도 의미 있었다.

내년부터는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의 운영 주체가 일원화된다. 그동안 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해온 디자인비엔날레를 광주비엔날레재단이 통합 운영하게 되며, 이를 통해 행사의 시너지 효과와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 운영을 통해 예산 절감과 함께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도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건립 중인 새로운 비엔날레 전시관이 완공되면, 기존 전시관을 파빌리온 상설관으로 전환하여 연중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

이다. 또한 지금까지 매입하거나 기증받은 작품들을 상설 전시하여 광주를 사계절 내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도시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새로운 전시관은 최첨단 전시 시설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다.

국제 현대미술계의 중요도시인 광주는 비엔날레와 디자인 비엔날레를 통해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시 전체를 문화예술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역 예술인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는 국내 어느 도시도 흉내내지 못하는 국제미술도시인 것이다. /추명우 학생기자

예술 감수성 키우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지역 문화예술 중심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이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제15회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한 '광주 파빌리온' 특별전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으며, 지역 작가들의 역량 있는 작품들이 전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

올해 하반기 광주시립미술관은 특히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가족과 함께하는 미술여행'은 예약 시작과 동시에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시 관람과 실습을 결합해 어린이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주는 동시에 가족 간의 소통을 도모한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술관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며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단순히 작품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술을 통해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미술관은 12월부터 새로운 기획전 '겨울나기' 전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연말을 맞아 시민들이 따뜻한 감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내년도 전시 계획에는 해외 유명 작가전과 지역 작가 지원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을 위해 더욱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며, 지역 미술계의 발전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추명우 학생기자



다양한 아시아 문화 교류·소통 '열린 공간'

아시아 최대 문화 복합공간 ACC

아시아문화전당(ACC)이 광주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 복합 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문화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2015년 개관 이후 ACC는 세계적인 수준의 전시, 공연, 연구 활동을 통해 아시아 문화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힘쓰고 있으며, 무료 개방을 통해 누구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ACC의 건축물은 자연과 예술의 조화를 강조한 독창적인 설계로 넓고 탁 트인 구조와 자연광이 풍부하게 어우러져 있다. 이로 인해 공간 전체에 개방감과 웅장함이 더해지며, 방문객들은 마치 예술 작품 안에 있는 듯한 색다른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대형 전시실, 아시아 예술 극장, 창작 스튜디오 등 다양한 시설이 완비된 ACC는 다채로

운 문화 콘텐츠를 소화할 수 있는 종합 문화 단지로 평가받는다.

ACC에서 열리는 전시와 공연은 현대 예술, 전통 아시아 문화, 디지털 미디어 예술을 아우르며,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폭넓은 예술적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고유의 전통과 현대적 요소가 결합된 전시들은 세계적으로도 찬사를 받고 있으며, 관람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더불어 ACC는 체험형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을 통해 관람객들이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덕분에 ACC는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아시아 문화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아시아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서 그 입지를 강화해가고 있다. /추명우 학생기자

예술·독립영화 성지...영화포럼 등 문화행사도

89년 역사 간직한 광주극장

1935년 문을 연 광주극장이 89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 예술영화의 성지로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건립되어 한국전쟁과 광주민주화운동 등 격동의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담아온 이곳은, 현재 예술영화 전용관으로서 독특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광주 총장로 57에 자리 잡은 광주극장은 1935년 10월 1일 개관 당시 '광주극장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이 건물은, 2층 발코니석을 갖춘 웅장한 모습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었다. 1990년대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등장으로 수많은

단관극장들이 문을 닫는 와중에도, 광주극장은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전환하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 현재는 국내외 예술영화와 독립영화를 주로 상영하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영화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매주 목요일 '시네마 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 해설을 제공하고, 감독과의 대화, 영화 포럼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하며 단순한 영화관을 넘어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광주국제영화제의 주요 상영관으로도 활용되며 지역 영화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23년 등록문화재 제916호로 지정된 광주극장은 역사적 가치와 함께 현대적 문화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인정받았다. 오래된 극장 특유의 아날로그적 감성과 예술영화만의 깊이 있는 작품성이 어우러져, 광주극장은 현대인들에게 특별한 영화 체험을 선사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추명우 학생기자

화려한 빛으로 물든 미디어아트...예향 광주도 빛낸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

광주광역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도시 곳곳이 미디어아트의 화려한 빛으로 물들고 있다.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된 이후, 광주는 디지털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광주 미디어아트의 중심에는 남구 전변로에 위치한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이 있다. G.MAP은 광주 최대 규모의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 그 외벽에 설치된 대형 미디어파사드가 특히 주목받고 있다.

이 미디어파사드에서는 총 8개의 작품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영되며, 시민들에게 독특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상영 중인 작품들은 광주의 정신과 문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테크네'는 인류 문명의 발전을 '손'이라는 모티프를 통해 형상화하

G.MAP·영상복합문화관·ACC 등 창작·전시·교육 생태계 구축 매년 가을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등 시민에 색다른 예술 경험 제공

고 있으며, 'Eternal Lights'는 무등산 호랑이와 디지털 십장생도를 통해 광주 시민들의 염원을 표현한다. 'Four Seasons, Memory'는 오명희 작가의 작품을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하여 광주의 정신을 사계절의 변화로 표현하고 있다.

G.MAP 외에도 광주 곳곳에서 미디어아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광주독립영화관이 있는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외벽에 설치된 T자형 인터랙티브 월은 새로운 미디어아트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 인터랙티브 월은 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된 것으로, 기존의 미디어월과 달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도 광주의 미디어아트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CC는

다양한 미디어아트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의 미디어아트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ACC의 미디어월은 대형 LED 스크린을 활용하여 다양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이며, 도심 속에서 시민들에게 색다른 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경호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센터장은 "미디어아트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디지털아트 글로벌 창작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디지털아트에 열정을 가진 작가와 미래 예술가들에게 이번 컬처랩이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미디어아트를 통한 도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년 가을 개최되는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은 광주의 미디어아트 역량을 국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았다. 또한,



G.MAP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아트컬처랩' 사업을 통해 디지털 아티스트와 예비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광주는 미디어아트의 창작, 전시, 교육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생태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이는 광주가 지향하는 문화중심도시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으며, 앞으로 광주가 미디어아트를 통해 어떤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천도근 학생기자